

새만금개발청, 개청 1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위한 각오 다져

- 현장 근무 직원 격려 및 청사 주변 환경정화활동으로 의미 되새겨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개청 13주년을 맞아 9월 11일, 변화하는 새만금의 여건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.
-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 9월 12일 개청했으며, 지난 13년간 새만금의 개발과 투자 유치,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.
- 새만금은 최근 사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 중이며,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따라 퍼지컬 AI와 AT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.
-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화원, 청원 경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.
- 이어 직원들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청사 주변 도로와 상가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, 깨끗하고 쾌적한 새만금 만들기에도 힘을 보탰다.
-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 범	(063-733-1006)
		담당자	서기관 이호열	(063-733-1050)
			주무관 윤희정	(063-733-1055)

